

일은 더 즐겁게 행복은 두배로!

+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탄생한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는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 참여 여성 3명이 근무 중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만났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원흥동) 문의 상담실 ☎ 031-962-3232



동물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펫숍 분양이 아닌, 입양을 독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에도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지원하며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 시스템을 갖춘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가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문의하면 좋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은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호센터에 소속된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 참여자들이 확산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항자·임재영·정예람 씨가 그 주인공이다.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힘을 보탠다. 동물에 대한 이해나 애정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박항자 씨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실에서 봉합실을 자르고, 수술도구를 세척·소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임재영·정예람 씨는 강아지, 고양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센터 SNS에 올려 반려동물 입양을 홍보한다. 이곳에는 아직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동물이 많다. 참여자들은 동물복지 수준을 끌어올려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행복을 더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는 경력단절자나 미취업 청년 등이 취업의 문턱을 넘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농업관련 등 공공부문에서 쌓은 실무경험이 곧 경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 참여자들이 탄탄하게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에도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항자



Mini Interview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을 보조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소 검사를 돕는 일을 담당합니다. 개를 7년 정도 키우고 있어서 지원했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임재영



지난해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를 통해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2월까지 근무 예정이에요. 펫숍 대신 센터에서 가족이 필요한 개와 고양이를 만나보세요!

정예람



반려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이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SNS에 올린 아이들이 입양가게 됐을 때 정말 부듯합니다. 덕분에 입양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